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역사 가운데로, 부흥의 시대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에게 일곱째 달 이십사일에 있었던 일들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보내고, 이틀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말은 ‘돌아오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복, 부흥도 회개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회개의 역사를 살펴보고 참된 회개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의 기준 앞에서 회개를 시작하라.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3시간 동안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죄를 자백하고 찬송합니다. 이미 일곱째 달이 시작하며 말씀의 은혜 속에 폭 잠겨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자 말씀이 그들 안에 회개라는 방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기준이 세워지고,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 고발당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방인과의 통혼, 그로 인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회개하라.

‘주께서’라는 말이 6절에서 38절까지 51번 반복됩니다.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 때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부어주시자 그 동안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조하시고(6절), 아브라함을 통해 택하시고(7절),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8절), 고난을 보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9~11절), 광야 길에서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12~14절), 위기에 놓인 자에게 길을 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15절)을 고백하게 됩니다.

16절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유대 백성들의 죄가 대조 됩니다. ‘그러나’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은 그 좋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용서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죄의 본성은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불편해 집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그 분 앞으로 더 나아갑니다.

셋째, 바른 결단을 통해 회개를 완성하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면 그들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본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와 달리 이제부터 세상과 섞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죄를 뉘우치고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인을 쳤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언약하고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을 보인 것입니다(38절).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변화를 이야기하지 실제로 변화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요한계시록 2:5)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1/3(월)	1/4(화)	1/5(수)	1/6(목)	1/7(금)	1/8(토)	1/9(주일)
창1-3	창4-7	창8-11	창12-16	창17-19	창20-22	창23-24

QT

이번 주 QT 말씀

1/3(월)	1/4(화)	1/5(수)	1/6(목)	1/7(금)	1/8(토)	1/9(주일)
눅 1:26-38	눅 1:39-56	눅 1:57-66	눅 1:67-80	눅 2:1-7	눅 2:8-20	눅 2:21-40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은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3. 회개하며 결단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